

일자리·삶의질·농업경쟁력 완주군, 3대 비전 가속화

‘행복 1번지 완주’ 만들기 2017 군정운영계획 제시

박성일 완주군수가 2017년은 으뜸 자족도시로 커나갈 모바일(일자리)·르네상스(삶의질)·농토피아(농업경쟁력)완주 등 3대 비전을 가속화하고 어르신과 미래세대 모두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완주’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22일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이날 제218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2017년도 군정계획을 이같이 제시했다.

박 군수는 민선6기 새로운 반환점을 맞이한 완주에 대해 결집된 10만 완주군민의 힘과 지력을 보여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 완주의 성장기틀을 확실히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박 군수는 특히 “2016년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완공분양,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 착수, 삼

봉지구 ‘웰빙시티’ 착공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귀농귀촌인진기 기업유치, 출생아수 증가 등 완주인구 10만 시대(전국 82개 군부 중 6위)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문화지수 전국 5위(군단위), 대한민국 책 읽는 지지체 대상 등 각종 삶의 질 지표와 평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 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성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내 최초 다산복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두 번째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컬푸드 안정적 성장과 모두가 잘사는 농업융성 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시범지역 선정, 사회소통기금 출범,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등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군수는 2017년도 군정은 “오름 자족도시,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완주” 실험을 위해 군정 3대비전과 어르신 복지, 미래세대 육성 등 2대 핵심정책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기 착공 및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추가 조성, 청년 일자리의 복지 등 완주군 청년정책 본격 추진과 함께 사회적 경제 1번지 도약, 완주 공공경제 프로젝트 등 모두가 버리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를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주군민 삶의 질 향상 종합플랜’을 본격 추진하고, 15만 자족도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삼봉 웰빙시티와 미니북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53만평 규모의 대규모 명품단지 조성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축구메카 완주 조성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르네상스 완주를 실현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완주 농업융성프로젝트 본격 추진, 귀농귀촌 1번지 완주 정착, 식품·먹거리 산업의 로컬푸드 2단계 성장 동력화 완주푸드(FOOD) 2020 등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를 열어가길 것임을 제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2018 국가예산 발굴 2차 보고회

진안군은 22일 이근상 부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2018년도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타 시도 벤치마킹을 비롯한 중앙부처 예산편성 방향과 정부 역점추진 사업 등을 연구·분석해 지난 10월 1차 발굴에 이어 2차 발굴을 추진하여

총 130건 7,900억원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보고된 신규 사업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전북도를 통해 정부부처에 제출될 예정이며, 각 정부부처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시급성 등의 정밀한 논리를 개발한 뒤 부처를 방문해 예산반영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내년 1월까지 2017년 정부의 업무보고 등을 분석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상 부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유치해야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며 “전 직원이 획기적인 국가예산사업의 추가 발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사과, 중화권시장 향한 발돋움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영철)은 지난 21일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황정수 무주군수, 정재호 지부장, 곽동열 조합장, 양승욱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은 무주반딧불사과 10톤을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베트남 수출에 이어 이번 수출은 홍콩의 대형 슈퍼마켓 중 하나인 ‘Wellcome Supermarket(웰컴 슈퍼마켓)’으로 무주군, 구천동농협, 무주농협,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직접 참석하여 MOU 체결을 실시하고 무주군 반딧불 사과 관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이영철 대표는 “해의 농산물 수출은 내수 농산물 가격저지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무주군 반딧불 사과 홍콩 수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개척을 위해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현장에 함께한 황 군수는 “무주 반딧불사과는 타지역에 비해 맛과 향

이 뛰어나 중화권 수출에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맛과 향이 뛰어난 무주반딧불사과가 중화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개최

무주군은 22일 무주읍 전통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군민으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 CS경영연

구소 이은선 소장은 “기본이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강력한 친절의 힘!”이라는 주제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군민들이 갖춰야 할 소양과 △재미있는 친절사례, △의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인사법, △고객에게 친절수준높이기 등을 강의했다.

주민들은 “내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등 많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포어공모전을 진행한다.

군은 지난 4월 국민안전처에서 선정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주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 ‘포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제는 안전문화운동 3대 핵심과제인 신고, 점검, 교육을 인용해 안전사고 5대 분야(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및 사망사고 예방이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우수상 5명을 선발해 최우수상에는 30만원 우수상에는 20만원 상당의 으뜸상품권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모델사업 모니터링 활동 지원금과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는 완주군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비롯한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등 많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당산리 축사 악취제거를”

이해연 군의원, 5분발언서 지적

이해연 의원

김준환 의원

이한승 의원

이해연 의원은 무주읍 당산리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5분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군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간 관련부서 TF팀 구성을 거쳐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행정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법적 위반 여부만 검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축사업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악취저감 미생물·약품이나 톱밥 공급, 단순한 악취 저감 시설 개선은 결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허려 축사 인근에 상수원(취수원)이 있는 점, 의료·요양시설이 집산화되어 있는 점, 외부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 축사의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김준환 의원 “머루수산업, 전통공예촌 리모델링사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김준환 의원은 “전통공예촌을 반딧불산머루 한우 전문 판매점 및 음식점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2014년 9월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무려 3년여 간 비어있다”며 조속한 활용을 촉구했다.

그동안 3번의 입찰공고가 있었음에도 유찰되어 운영하지 못

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찰된 원인은 “건물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 예정자의 사용목적 및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먼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입주자가 다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현재 조성 중인 머루수산업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승 의원 “형식적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해야”

이한승 의원은 보조금 성과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많은 사업에서 보조금사업자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에서 장산검사를 내지는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안하고 자료제출에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라고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무주군의 82.1%가 임의인 점을 들어 “주먹구구식 보조금의 지원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하여 임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군 임업에 바람직한 것인지 제대로 진단해 볼 것”을 제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한우 100두 특별판매행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서 진행

장수군은 장수한우 브랜드를 내걸고 전국 최초로 ‘장정 장수한우 100두 특별판매 행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농협유통의 수도권 거점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는 장수한우 100두 특판 행사를 통해 장수한우를 대한민국 대표 명품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한편, 다양한 시식행사 및 할인 판매를 통해 장수한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시켜,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브랜드 파워를 높여 가겠다는 취지이다.

장수군 축산과 김연식과장은 “이 행사를 기점으로 오는 25일에 농협유통과 간담회를 갖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인 유통 확대와 장수군의 우수 농산물 수도권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수험생 대상 건강교실

무주군은 수능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교실은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보건의료원의 운동, 금연, 영양, 구강 전문가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합동 출장해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무주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학교 별로 희망 일정에 따라 1~2회 정도 방문할 계획으로, 건강기초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며 기초체력 측정과 함께 체력증진을 위한 체조도 실시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비롯해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진행하며 흡연 예방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치료 진료를 의뢰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22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완주군 행정의 공과를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세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중 12월 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는 완주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완주군 청년기본 조례안, 출연 동의의 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보건의료원 구강유지결 공연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 구강보존실에서는 22일 2회에 걸쳐 유치원 520여명을 대상으로 한우리전당 내 소공연장에서 ‘이빨 씹는 호랑이와 햇님·달님’으로 구강유지결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춤과 노래, 연극이 어우러진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해 올바른 씹을질 습관, 구강건강의 첫걸음인 화력기 이용들의 충치예방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 공연에 참가한 유치원생은 “저는 이를 깨끗이 잘 닦아서 해님, 달님처럼 예쁜 사람이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용 용담다목적댐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관리전환

진안군은 22일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관리전환’ 건의과제가 행사자 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318건) 중 1차로 경제부처(9개부처 180건) 건의과제에 대한 최종 재협의 결과가 지난 21일 전라북도에서 통보되었다.

전북과제 회신건수 총 31건 중 17건(수용2, 일부수용2, 기수용3, 대안제시 4, 수용권양3, 비규제3)으로 수용 2건 중에 진안군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관리전환’ 과제 1건이 선정되었다.

과제내용을 보면 유휴 행정재산은 총 면적 183만 3,342㎡, 토지 1,244필지, 건물 74만동이며, 시제내용으로는 용담다목적댐 주변의 간접보상 토지는 2007년 댐 조성 완료 이후 현재까지 8년여 동안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용담댐부지 이용 목적 외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 이후 매각, 양여, 임대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즉시 용도 폐지 및 관리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정기 실태조사 및 후속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유휴 행정재산 활용도를 제고 할 예정으로 최종 수용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 소통기금 활성화 협약

완주군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기금 조성에 한 뜻을 모으고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군은 22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완주군민모금운동인 ‘1111사회소통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CB재단이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일 군수, 완주CB재단 이근식 센터장, 13개 읍면장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완주=이종복 기자